

# 광주상무소각장 활용방안 연내 확정하나

### 지역주민 여론·전문가집단 의견차 커 갈등 예상 1만여명 설문조사 30일 보고 ... 표류 가능성도

올해말 폐쇄를 앞둔 상무소각장 활용방안이 연말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각장 주변 지역민과 도시공사, 시민 여론, 전문가 집단 등이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과 반발이 클 경우 상무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 핵심인 시민과 소각장 주변 지역 설문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설문조사는 소각장 주변 14개 아파트 전 주민(908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광주시민(1000명)을 표본집단으로 한 여론조사,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각 33명과 31명이 참여했다. 최종 설문 및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TF회의서 보고될 예정이다.

문제는 조사결과가 소각장 주변 지역민과 광주시민의 뜻이 큰 이견을 보이게 나올 경우 광주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앞서 소각장 부지 활용방안을 접근성, 항공기 소음 등 지역 여건 고려와 사회·문화적 특성 고려, 활용으로 인한 경제성 등 3가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주변 지역민들은 인접한 광주도시공사 부지를 광주시가 사들여 대규모 건강복지타운이나 도서관 건립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시민 여론은 전 시립이나 도서관 등 문화와 교육시설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민이나 시민 모두 현 소각장 시설은 철거하는 것에 동

의했다.

지난해 시행한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 용역에서 전문가나 공공기관은 시민안전체협관이나 기록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역민들은 소각장에 인접한 도시공사 소유 공터(5만여㎡)를 사업부지에 포함,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는 주장인 반면 도시

공사 측은 600억원대에 달하는 토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놓고도 지역민과 도시공사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도시공사는 상무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나 다른 없는 이 땅에 아파트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각장 주변 지역민을 위한 기금 사용처 등을 결정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촉 만료 7개월 여만인 오는 24일 5기 협의체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대표 10명, 서구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60억원 안팎의 기금에 대한 활용처, 분배비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상무소각장은 공사비 743억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5년여만인 2001년 6월부터 가동 중이다.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연말 폐쇄되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에 조성중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생산시설에서 처리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폐쇄 앞둔 상무소각장

광주 도심 속 대표적 남비시대로, 연말 폐쇄를 앞둔 상무소각장 전경. 활용방안이 연말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 등이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 군공항 이전 작업 속도낸다

### 국방부 '적정' 최종 통보

광주시는 22일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적정 평가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광주 군 공항 등에서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했다.

평가항목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600점), 새로운 군 공항 이전방안(200점), 이전할 주변 지역 지원방안(2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적정 기준인 800점을 훨씬 넘는 900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결과 통보서에서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광주시 주도의 구체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번 국방부의 정식 통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광주형 이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이전부지 선정에 관한 용역 추진, 이전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전 건의서에서 전남 서남해안 9개 시군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2022년까지 군 공항을 옮기고 기존 공항부지에는 2025년까지 신도시인 가칭 솔마루시터를 조성하는 로드맵을 마련, 추진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예정지 주민 반발

### 유촌동 주민, 다른 장소 이전 요구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 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서구 유촌동 일부 주민들이 기지 예정지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촌동 일부 주민은 최근 가칭 차량기지 건설반대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들어갔다. 이들은 최근 운영현 광주시장과 만나 차량 기지 탓에 주변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분진 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다른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시는 전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편입 사실 등을 알리는 과정에

서 반발이 가시화했다.

차량기지는 도시철도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 유촌동 일대 6만4000여㎡에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고 설사 예정지를 옮긴다 해도 시민사회 반대나 이전지 주민의 역민원도 예상돼 난색을 보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해 엄정하게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규정상 추가적인 혜택을 제시할 수도 없다.

시 관계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 요구를 듣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누리, 오늘 전북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 이정현 대표 참석 현안 청취

### 3개 시·도지사, 예산 건의

새누리당과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정운천·권석창·성일종 예결위원, 각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역 현안을 설명한 뒤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한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 ▲전장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기반 조성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광주

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사회협약 법제화 등 현안 5건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 조성(403억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20억원) ▲무등산 정상군부대 이전(50억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30억원) 등 내년도 국고지원사업 15건(1538억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남해안 철도 건설 등 18개 사업 1조2365억원을 비롯한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 건조물량 확대, 조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정현 대표는 3개 시·도의 동시 보고를 받은 후 50분간 토론한 뒤 오후에 상경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3200억

### 경북·강원·전북이 4위

전남지역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3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산림청이 발표한 전국 각 시·도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현황자료를 보면 전남지역 생산액은 3207억원으로 경북(6411억원)·강원(4324억원)·전북(4082억원)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짧은 기간에 생산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밤·대추·감·복분자·딸기·오미자·산양삼·마·송이 등

중실류나 버섯류 등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적인 임산물 생산액은 전년보다 6.7% 증가한 8조 3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1910년부터

시작됐으며, 14종 147개 품목의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해 임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생산액은 크게 단기소득임산물 2조 9928억원, 토석 2조7369억원, 순임목 2조 1405억원, 용재 4676억원 순으로 많았다. 순임목은 1년 동안 산에서 자란 나무의 양이다. 용재는 연료 외에 건축·가구에 쓰이는 목재를 의미한다.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서는 버섯류(2441억원) 생산액이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조경재(7360억원)는 15.4%, 약용식물(5622억원)은 10.1%, 산나물(3832억원)은 3.7% 늘었다. 반면 밤·대추·호두 등의 수실류(7246억원)는 생산액이 15.7% 감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운영 매뉴얼 개발

### 외부추천 이사 역할 제시

전남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추천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을 나섰다.

전남복지재단은 22일 "외부이사 추천 절차와 외부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재단은 8월 중 이 매뉴얼을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53개 사회복지

지법인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17년부터 외부추천이사과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는 2011년 영화 '도가니'의 열풍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 침해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201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후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